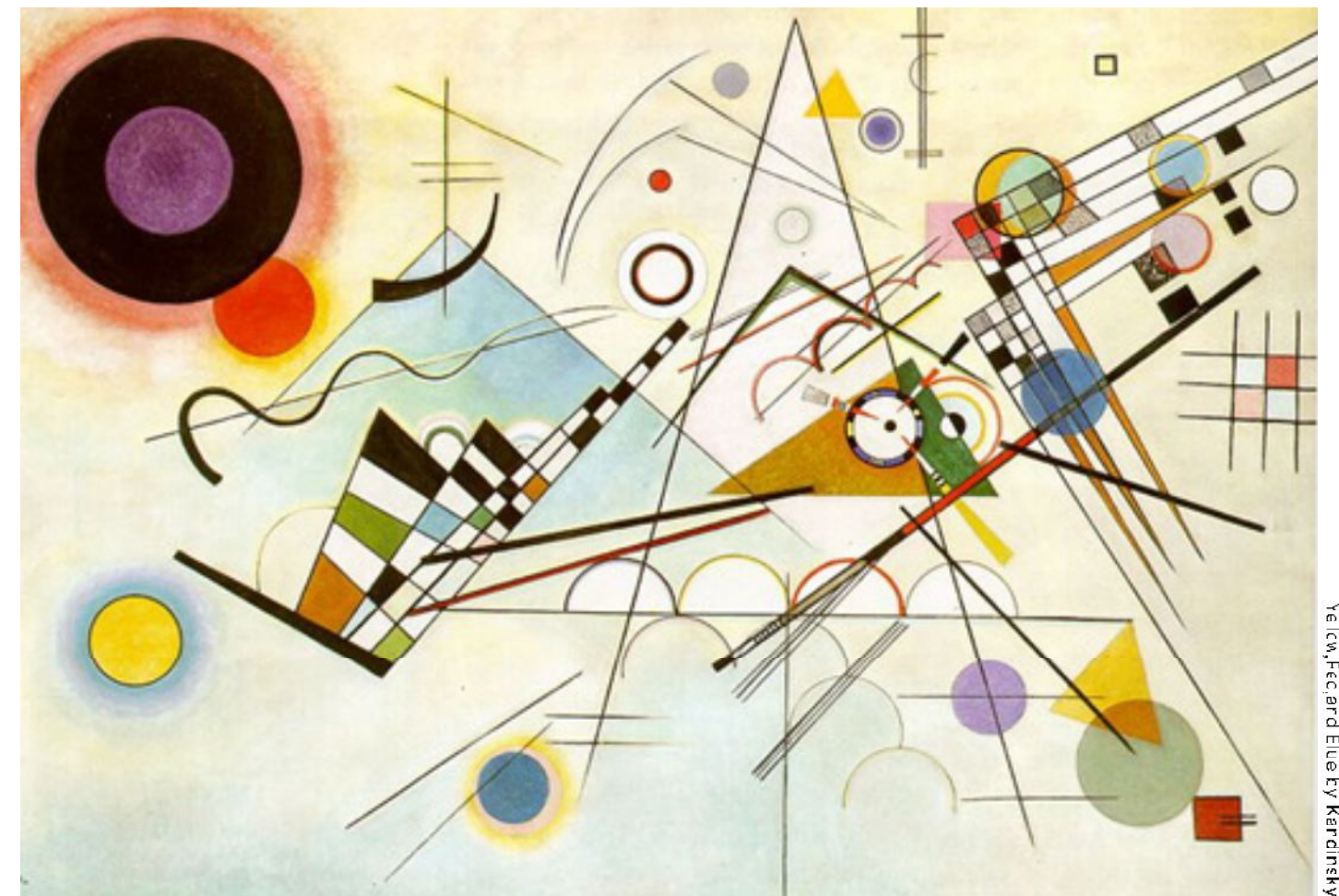


2006  
Spring  
Vol.11 No.1  
www.kaistgsm.ac.kr

# Frontier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Yellow, Red, and Blue by Kandinsky



Frontier www.kaistgsm.ac.kr

특집

## 금융 산업 트렌드, 국내 금융 산업의 현실은?

금융전문대학원 출범에 즈음하여 | Globalization of Legal Education | 조직의 덕이 있는 행동의 실천 | FT 선정 '2006 Global MBA 100' 에서 KAIST MBA 102위가 의미하는 것 | 겨울학기 인턴십과 CareerLeader



0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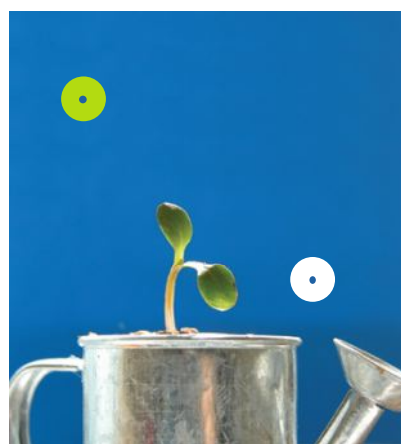
16



18



17



10



22



28



30



35

# Frontier

Frontier 2006 Spring Vol.11 No.1(35호)

• 발행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 박성주 • 편집인 김동석 · 조연주 • 기획 황은정 · 최정희 • 취재 박주영 · 전필상 · 정석 · 한세원 · 허지은 • 발행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랑리 2동 207-43 • TEL (02) 958-3246 • FAX (02) 958-3243 • 디자인 경희정보 디자인팀 Designest (02) 2263-7534

## contents

04 **나침반** 금융전문대학원 출범에 즈음하여(김동석 교수 ·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

05 **특별기고** Globalization of Legal Education(David E. Van Zandt · 노스웨스턴 로스쿨 학장)

06 **News** 테크노 뉴스

10 **Feature Article** 금융 산업 트렌드, 국내 금융 산업의 현실은?

15 **캠퍼스탐방** 꽃동네 봉사활동기 | 200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색 신입생 | 2006 학위수여식 현장

20 **전문가 코너** 조직의 덕이 있는(virtuous) 행동의 실천(이승윤 교수)

22 **조사·분석** FT 선정 "2006 Global MBA 100" 에서 KAIST MBA 102위가 의미하는 것(MBA Director 조연주 교수)

26 **Career Development** 겨울학기 인턴십과 CareerLeader

28 **Globalization** 21세기 Gold Rush 현장을 다녀와서(나범수 · 텔레콤 MBA 2005)

30 **동문탐방** AIM 강보영 동문 | 경영공학 류학선 동문 | 전자정부고위과정 엄광빈 & 엄정원 동문

34 **교양코너** 국가 지식정보 DB사업

35 **알림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각계의 관심과 기대 속에 금융전문대학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식장에 서서 언뜻 떠오르는 것은 시인 서정주의 시 한 구절이었습니다.

길게는 카이스트에서 경영 교육을 시작하던 근 30년의 기간, 가깝게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세우고 선도적인 금융공학과정을 운영해 온 10년간의 기간, 짧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대학원 개설 준비에 매진하던 기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교수님들과 행정 선생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외부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소신을 갖고 도와주신 분들의 고마운 정성이 있었습니다.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일해 온 수 많은 날의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신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에 금융전문대학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전문대학원 출범에 즈음하여

김 동 석 교수 | KAIST 금융전문대학원장

이제 우리는 한 송이의 국화꽃이 화단을 이루고 군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작게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보다 더 넓은 곳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를 있게 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한낱 꿈이 아니고,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디만,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Software적인 면에서도 10년간 경험의 결정체인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모듈방식과 현장의 니즈가 즉시 반영될 수 있는 능동적 교과과정 관리체계 등 내용을 만한 부분을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wetware라 칭하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카이스트 문화입니다. 교수님들이 지난 10년간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학생들의 독특한 24시간 학습문화 그리고 우리 구성원 모두의 협력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hardware를 잘 갖추고 훌륭한 software를 설치해도 맘홀림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힘을 합해 나아가면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Any law dean worth his or her salt will tell alumni and student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ir school to be “international.” Yet many schools waste scarce resources on haphazard attempts to be more “international.”

No matter where in the world their offices are located, lawyers, engaged in sophisticated business practices, need the same fundamental analytical skills to operate successfully in the global arena. While local regulation of specific jurisdictions cannot be ignored, a common global model for engaging in transactions and settling disputes is emerging and driving legal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sphere. It is based on management principles taught by the world’s leading business schools such as KAIST and legal principles and practices that have their root in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And, for better or worse, these days, negotiations and transactions are most often conducted in English around the world.

Most law schools, however, remain traditional in their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They treat it as a discrete subject, teaching international public law or comparative law and focusing on the cases and emerging rules from decisions of court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ome schools claim to be international because they import international faculty. Others offer their students opportunities to study abroad for a semester or the summer.

While valuable in some respects, most of these approaches demonstrate little awareness of the emerging conventions and actual practices of law in the global market. In reality, the best preparation for global practice is a strong foundation in the basic principles of Anglo-American law and an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business objectives and practices that drive the legal services business.

Though not perfect, American legal education is still highly valued throughout the world for its relative creativity and its close tie to the emerging set of global conventions. Many firms and businesses outside the United States realize that, in order to provide value for clients, young attorneys need three things: a basic understanding of Anglo-American law, the strong analytic skills, and exposure to American business and legal culture at the heart of the emerging global conventions.

Yet not all working legal and business professionals can leave their career or personal commitments to study in the United States for a year or more. That is why Northwestern Law has developed Executive LLM Programs in Europe and Asia through partnerships with renowned business schools KAIST School of Management in Seoul and Instituto de Empresa in Madrid. The programs are designed for lawyers with a civil-law background who are already in practice and want to continue to work while they earn an American LLM degree.

Although regulatory barriers to cross-border trade in legal services and legal education remain high, as in other sectors, the economic pressures will soon be too great to resist and those barriers will eventually come down. In just a few short years, we have already seen the regulatory barriers in Europe and Asia fall with respect to legal services. For Northwestern Law graduates and graduates of our Executive LLM Programs with KAIST and IE,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 changes going on in the world and in legal services are great and growing everyday. **☐**



## Globalization of Legal Education

Dean David E. Van Zandt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 박성주 대학원장, 서울 부총장에 임명



지난 2006년 1월 1일,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이 KAIST 서울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인사로 KAIST는 대외 부총장, 교학 부총장, 서울 부총장 등으로 3분화

하는 조직체제로 정리되고 학제융합과 맞춤형 교육 등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교육수요에 유연성 있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박성주 신임 부총장은 1950년 생으로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System Science)를 받았으며, 현재 AACSB 상임이사, AAPBS 회장, 아태지역경영 대학협회 회장, 한국경영대학(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 한국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금융전문대학원 개원



지난 2월 28일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SUPEX경영관 최종현홀에서 국내 최초로 금융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이번에 설립되는 금융전문대학원은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의 아시아 금융허브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

이라는 데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이날 개원식에는 호주계 투자회사인 Macquarie사의 존 워커(John Walker)회장이 참석해 단위 대학원에 기부하는 기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를 석좌기금으로 기부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감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 후에는 KAIST 이규성 교수의 “동북아 시대 한국 금융의 진로”를 주제로 한 기념 강연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KAIST 러플린 총장과 박성주 서울부총장을 비롯한 KAIST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김석동 차관보, 과학기술부 박영일 차관,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 박용만 한국증권연수원장, 남궁훈 생보협회장, 안공혁 손보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이종남 선물협회장, 김규복 신보이사장 등 주요 금융관련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여 현판식 및 기념식수 등의 순서를 진행하였다.

3월부터 68명의 신입생과 함께 첫 수업을 시작한 금융전문대학원은 2년제 주간 전일제 석사과정인 ‘금융 MBA 과정’과 금융회사 중견직원 보수 교육을 위한 6개월 주말 단기과정인 ‘금융전문가 과정’으로 운영된다.

###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설립

본교에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이 설립되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대학원은 올해 특화 MBA 50명을 선발하며

정보미디어 기술과 경영 과목을 접목한 융합형 교과 과정을 위주로 커리큘럼이 짜여진다. 올 봄학기에는 기존 테크노 경영대학원의 MIS MBA과정과 텔레콤 MBA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원하며 9월 가을학기에는 특화 MBA을 새로 선발한다. 향후 관련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 석사과정으로 매년 50명씩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 이외에 최고 경영자과정, 산학컨소시엄, 연구센터 설립 등 IT 경영분야의 World-class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도약한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KAIST에 설립을 제안했으며 첨단강의실, 실험실 설치 및 교수 확충 등 기본 학사 경비는 정통부가 4년간 지원한다. 이로써 KAIST의 맞춤형 대학원은 자동차 전문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을 포함해 모두 4개로 늘어났다.

### 故 김진재 발전후원장의 넋을 기리며... 추모행사



본교 발전후원회 회장(AIM2기)으로 지난 3년간 많은 공헌을 한故 김진재 동문(전 국회의원)의 추모행사가 지난 2월 3일 발전후원회 주관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아트리움에서 거행되었다.

故 김진재 회장의 가족과 지인, 고위경영자과정

동문, 본교 교직원 등 총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주 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영상물을 통하여 고인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이한구 의원과 오유방 변호사 등 지인들의 추모사와 공로패 전달 등의 순서로 고인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故 김진재 회장은 본교 최고경영자과정(AIM) 2기 동문으로 작년 10월 24일 저녁,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 E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행사



“늦깎이 신입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006년 2월의 끝자락, 아름다운 바다와 바람이 어우러진 제주에서 EMBA 3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3기 신입생들도 전공에서 준비한 여러 다양하고 유쾌한 시간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70여 개의 오름이 내려다 보이는 토속식당에서의 황홀한 점심식사, 한라산 백록담보다 더 물이 많다는 물찾오름 트래킹 등은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보배 같은 추억이 될 것이다. 3기 신입생들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입학 전부터 끈끈한 동기애를 다질 수 있었으며, 바다 건너 제주까지 먼 길 모르고 달려온 1, 2기 선배님의

후배사랑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 더 좋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많은 행사를 경험했지만 이번 EMBA 오리엔테이션 행사처럼 짜임새 있게 구성된 행사는 처음이다, ‘KAIST EMBA 3기라는 것이 벌써부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행사 내내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열기를 고스란히 모아, 3월 첫째 주에는 SUPEX경영관 5층 최종현홀에서 3기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미 친밀감을 쌓은 터라 입학식은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의 활발한 모습들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하여 신입생 대표인 황인용 대표이사의 우렁찬 선서로 막을 내린 이 날 입학식은, 3기 신입생들이 앞으로 2년간 EMBA 3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도약할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유감 없이 보여 주었던 자리였다. EMBA 3기 여러분, 모두 파이팅!



냉전체제가 종식된 지난 20세기 이후 세계질서는 정치, 군사 위주에서 경제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신자유주의의 가치 아래 지역주의에서 개방주의로의 변화는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 경제 정책에 관한 뉴라운드가 출범하고 지역 블록의 광역화와 FT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동안 국제거래가 용이하지 않았던 서비스 교역과 국제 자본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금융 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금융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겸업화, 전문화, 정보화 등에 대응하여 금융 산업의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금융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최근 본교와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본지 특집에서는 범세계적인 금융 산업의 트렌드와 국내 금융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의의와 선진 금융전문대학원의 사례를 통해 그 비전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금융 산업 트렌드, 국내 금융 산업의 현실은?



## 세계 금융 시장

쌍둥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이 국내 총생산(GNP)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비결은 바로 금융 산업에 있다. 범세계적인 투자은행(IB)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자본시장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즉 풍부한 자본과 다양한 금융 상품은 물론 금융 전문가의 질과 양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채권이나 주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수연동옵션은 물론 강수량이나, 범죄 발생률, 탄소배출권 등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 자본과 투자 상품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미국과 더불어 직접금융시장을 중요시하는 영국의 경우 1980년대 금융 빅뱅을 통해 외국 금융자본을 대거 받아들임으로써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하였다. 1986년 금융서비스업법(Financial Service Act)의 제정을 통해 분업주의를 포기하고 은행의 증권업 진출을 허용하여 겸업화를 유도하고, 증권회사의 소유제한을 폐지하였다. 영국의 금융 산업은 새로운 금융 기법과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감독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세계 제 1위의 외환시장과 제 2위의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 창출과 대외수지 개선을 통해 세계 최대의 금융 순수출국으로 발전하였다.

홍콩은 1970년대부터 외국 투자 은행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자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는 4번째, 아시아지역에서는 2번째로 큰 국제 금융 센터로 발전하였다. 홍콩의 가장 큰 강점은 정부정책과 규제가 투명하고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민간은행인 HSBC에서 국책 은행의 역할인 통화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세계 100대 은행 중 73개 은행이 홍콩에서 활동할 정도로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융 허브로 발전한 영국,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금융 빅뱅을 통해 성공적인 금융 시장으로 도약하였다. 하지만 정치 불안과 과도한 규제를 바탕으로 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은행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소매금융에 치중하는 등 금융 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 통합 법안을 마련하여 금융 빅뱅을 통해 금융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동북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국내 금융 산업

IMF 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와 금융 산업의 중요성을 체험한 우리나라 정부는 '동북아 금융 허브' 정책을 수립하고 1960년대부터 추진해 왔던 독일·일본식 경제개발모델에서 직접금융시장을 중요시하는 미국·영국식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2006년 2월 19일에 발표한 가칭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 상품을 설계·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을 비롯한 부동산 및 실물 파생상품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펀드 운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금융 제도적 변화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처럼 국내에서도 거대 투자 은행이 탄생되고 금융빅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계 금융사가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무조건적인 몸집 불리기만으로 외국 투자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금융 상품들을 개발해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만이 외국계 금융사와의 경쟁에서 국내 금융투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하지만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 전문인력, 국제관리인력, 외국인 고급 인력 등 고급 인적자원이 아시아 금융 허브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에 크게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적자원의 국제순위 비교

(순위)

|                      | 한 국 | 홍 콩 | 싱가포르 | 중 국 |
|----------------------|-----|-----|------|-----|
| 금융전문인력 <sup>1)</sup> | 45  | 11  | 15   | 39  |
| 국제관리인력 <sup>2)</sup> | 5   | 2   | 3    | 59  |
| 외국인 고급인력             | 42  | 5   | 2    | 28  |

주 1) Finance skills are readily available  
2) International experience of senior managers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 금융전문인력의 수요 추정

(단위 : 명)

|                  | 현 재    | 3년후    | 10년후   |
|------------------|--------|--------|--------|
| 필요인력             | 19,277 | 24,258 | 31,025 |
| 현재 대비<br>추가 필요인력 |        | 4,981  | 11,748 |

정부의 요청으로 Synovate가 실시한 금융인력 현황 및 수급 전망에 관한 조사(2005.6.)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금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금융 전문 인력 수요는 3년 후에는 약 5천명, 10년 후에는 약 1만이며, 이 중 3년 후 전문 인력 수요 대비 공급 부족 규모는 약 15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상품개발, 파생상품 등 전문 분야의 3년 후 공급 부족은 72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인력의 양과 질 모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KAIST의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문 인력의 양과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학계의 의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수준의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고 첨단 금융지식을 창출하는 국제화된 전문대학원을 지향하며 지난 2월 28일 개원했다. 본교가 금융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까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첫째, 지난 10년간 금융공학 MBA, 경영공학 석·박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실적을 인정 받았고 둘째,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목표로 차별화되고 우수한 교과 과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전문대학원의 모습을 설립형태와 구조, 그리고 교과 운영으로 살펴 보겠다. 금융전문대학원이 새롭게 개원하면서 KAIST 서울캠퍼스는 조직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 테크노경영대학원 내 전공으로 운영되던 금융 관련 전공과 과정들이 금융전문대학원으로 확대, 분리됨에 따라 서울 캠퍼스는 앞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금융전문대학원의 양대 대학원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서울부총장 직위가 신설되어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이 서울부총장으로 취임하였다.

한편, 교과 운영에 있어서 모듈식 운영과 총 8개의 트랙(track)별로 각 분야의 금융 전문가를 키워내는 트랙형 교과목 이수가 눈에 띈다. 모듈식 운영은 관련 교과목들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 뒤 모듈별로 책임교수와 현장전문가가 맡는 자문위원을 두어 교과 과정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시장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이다. 또한 트랙형 교과목 이수에 따라 학생들은 2개까지 자신의 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트랙을 이수하기 위해 트랙별로 지정된 4개의 모듈에서 각 1과목 이상씩 최소 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예를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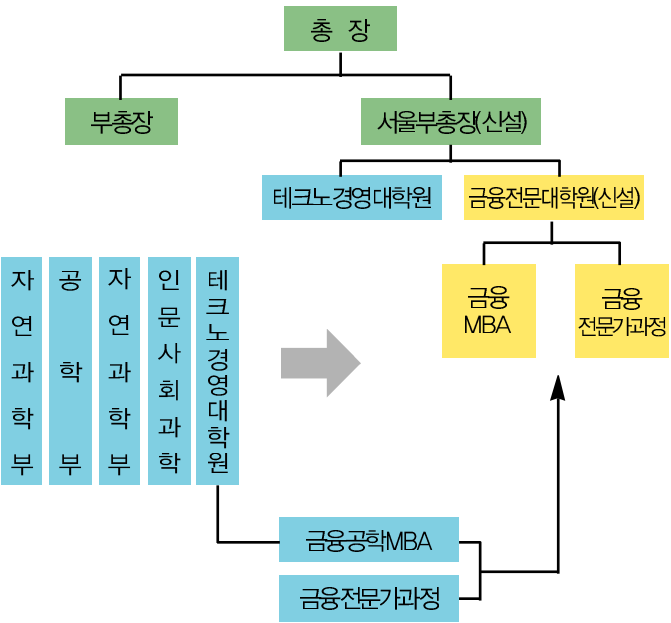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자산 운용 전문가 트랙을 선택한 학생은 투자전략모듈, 채권모듈, 파생상품모듈, 금융시장 모듈의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준비를 거쳐 출발하는 금융전문대학원이지만 역시 성공의 열쇠는 우수한 교원과 학생 확보에 있을 것이다.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12, 전임교수 강의 전담률 88%로서 세계적 수준을 자부하고 있으나, 금융전문대학원은 향후 4년에 걸쳐 전임교수 10명과 겸임, 초빙교수 10명을 추가로 총원하여 44명의 교원을 확보하고, 우수한 외국인 교수 및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더욱더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다양하고 엄격한 학생 전형 과정을 통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외국인학생 비율 증대와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학생 활동 및 취업 지원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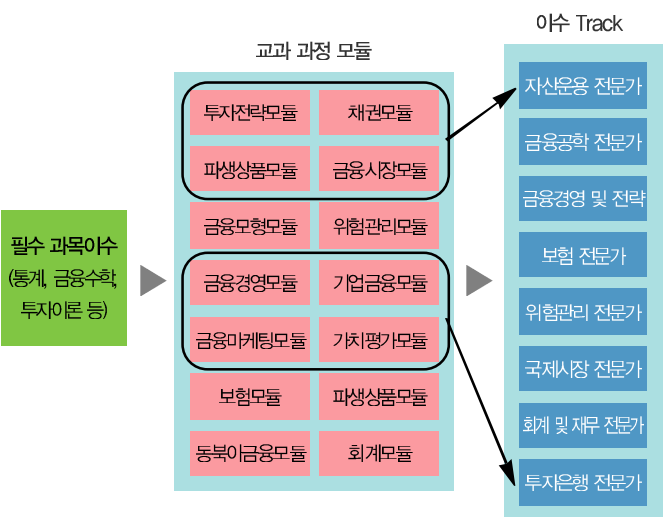
### 외국 MBA 스쿨의 금융분야

세계적으로 와튼 스쿨, 런던 비즈니스 스쿨 등은 금융분야에 있어 큰 명성을 얻고 있는데, KAIST 금융전문대학원에 비해 어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겠다. 전통적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함께 경영학석사 과정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며 재무 회계 분야에 선두적인 자리매김을 해 온 와튼스쿨(Wharton School·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은 1881년 조지프 와튼(Joseph Wharton)의 기부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경영 대학 및 대학원으로 ‘세계 최우수 MBA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고 있다. 재무·회계 분야에 특출 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대한 통찰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전 세계 국가의 유명 기관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학생들이 이들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와튼스쿨 MBA 출신 한국인들은 현재 300여 명으로 이들은 재계와 학계·컨설팅·금융·벤처기업·정부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융계에서는 흥석주 조흥은행장을 비롯, 김기범 한불종합금융 사장, 이충완 우리신용카드 부사장,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이 있다. 영국 특유의 우아함이 돋보이는 리젠트 공원 바로 옆에 있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LBS)은 비즈니스 흐름에 맞추어 매년 운영방식과 교과과정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라 학생들이 직접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기령 1학년과 2학년의 중간인 서머스쿨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금을 모아 기업체를 창업하는 연습을 하고, 학교도 벤처캐피털 펀드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또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함께 양대 금융가에 위치하며 금융 분야에서 서로 비슷한 관심과 연구능력을 갖고 있는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과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형태



금융전문대학원 교과 운영



제휴를 맺은 등 국제적인 학교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현재 런던 비즈니스 스쿨 출신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은 80여명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노기호 LG화학 사장, 손원길 우리금융 상무, 김완정 서울증권 부사장 등이 있다. 이 밖에 외국계 금융기관과 컨설팅 회사에도 동문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미국 시카고 소재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는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스왑 등 현대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석사과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였으며, 2001년 가을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IIT의 시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가상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IIT의 MS 과정은 전체 14과목이 금융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월등히 높이고자 재무전략과 거래에 필수적인 계량적 분석적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금융시장 및 상품, 기술에 대한 최신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전 세계에 걸쳐 거래회사, 은행, brokerage houses, 거래소, 투자회사, 기술정보회사, 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다.

### 닫는 글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금융전문대학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개원하였다. 또한 우수 기업과의 제휴 및 세계 수준의 금융대학원과의 교류, 그리고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지난 10여 년의 MBA 역사와 학문적 수월성 그리고 뛰어난 교수진과 행정 인력, 더불어 열의를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다면 세계적 수준의 금융전문대학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김동석 금융전문대학원장 인터뷰

###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까요?

단순히 많은 외국기관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금융허브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기업활동의 중심에 서고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들이 이루는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허브라 함은 단순한 집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가 양성한 인력이 동북아 금융산업의 중심인력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이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우리가 배양한 인력의 손을 거쳐 흐르게 하는 것이 금융허브가 되는 길이며 우리나라에 집중이 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사고의 소치입니다.

### 금융전문대학원은 다른 경영전문대학원 또는 대학원 과정과 어떻게 차별화 되나요?

다른 과정과 다른 경영전문대학원과의 관계는 경쟁적 파트너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카이스트의 특성을 살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top end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positioning 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으로는 이론의 습득과 현장 적용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특성에 따른 모듈들을 중심으로 책임교수와 현장전문가가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이론 및 현장의 니즈를 접목하여 능동적이고 항상 앞서가는 신개념의 교과과정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 다른 과정과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카이스트의 발전에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현대 금융 교육은 매우 interdisciplinary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학, 통계학, 정보기술, 첨단재무이론 등을 기본으로 금융공학이나 금융경영의 다양한 부문으로의 특화 교육을 해야 하며, 전통적인 경영학 전 분야와 금융관련 법학 등 많은 관련 학문분야와 함께 성장을 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대학원의 성장은 관련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다양성을 위한 critical mass를 확보하게 되어 다양한 교수진이 다양한 교과과정을 다른 과정에도 제공할 수 있어 교육적 차원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고 각계에서 respect 를 받는 카이스트의 인력이 우리 금융계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아시아 각국 넓게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므로 카이스트의 가족이 이루는 네트워크는 학교의 발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전문대학원의 목표, 미래상은? 또, 개인적인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입니다. 세계적 수준이라 함은 단순한 구조적 수식어가 아니며 달성 못할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진보적인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사이에 퍼져있는 카이스트만의 unique 한 학습 문화도 우리가 내놓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만 영어권 국가의 대학원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로 인하여 상승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유지해 나가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매우 단순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금융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현재 신입생들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배움을 얻고 실현시켰으면 합니까?

자신만의 성장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같이하고 배움을 나누는 것이 성장을 배가하는 길입니다. 학교에서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많은 경우 개개인의 성취는 주변의 얹혀있는 많은 조직 구성원의 보이지 않는 뒷받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물론 수월성을 지향합니다만, 나 홀로 똑똑이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돕는 도우미가 되고자 노력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서 거듭 날 것을 확신합니다. **F**

# 꽃동네 봉사활동기

올해에도 지난 2월 23일(수)부터 2월 26일(월)까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006학년도 신입생들이 4일간 꽃동네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던 4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박 소 정 | 테크노 MBA 2006

4일 동안 일했던 곳은 사랑의 집으로, 여자 부랑자들이 모여있는 집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거지들부터 노숙자까지, 주로 부모님 연세가 되는 50대 후반이 많고, 신경증, 정신 지체, 알코올 중독, 치매 등의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누구를 보든지 ‘엄마’ 라고 부르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프다’ 라는 말이 입에 붙어 버린 사람, 손을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 꼭 자기 옆에 앉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모두 다 나와 똑 같은 사람이었다. 처음 그들의 일을 내가 해 주려고 할 때마다 강한 거부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거나, 안 들리는 척 묵묵히 해 나가는 그들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나중에 빨래 당번, 식사 당번이 있고, 몸이 덜 불편한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돌봐 주는 것을 보고서야 내가 이 곳에 온 이유는 그들이 직접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지켜보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꽃동네에서는 꽃동네 가족들 손을 잡으며 ‘사랑합니다’ 라고 부끄럼 없이 말 할 수 있는 ‘우리’ 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은 교내에서도 동기, 선배, 교수님들에게 이런 말을 조심스레 건네 보는 것은 어떨지...

“ 사 랑 합 니 다 ”



김 강 범 | 테크노 MBA 2006

정신 없이 장(醬) 담그는 일을 돕고, 식품 나르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이 되었다. ‘환희의 집’ 은 정신 장애를 겪고 계신 440명 정도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다른 집처럼 가족 분들을 직접 도와주고 말 벗이 되어주고 직접 목욕을 씻겨드리면서 교감을 갖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일하시면서 어려움 한번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분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음에 분명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4일동안 참석한 모든 학우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하였지만, 밝은 모습으로 매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우며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그 동안 느낀 점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나온 말 중의 하나는 이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내 주위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학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학우들의 가장 큰 다짐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사회의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F**

“ 꽃 동 네 를 다 녀 와 서 ”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았던 2006년 겨울, 방학으로 내내 조용하던 대학원 캠퍼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새싹이 움트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를 하루 지난 2월 20일 월요일, 200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캠퍼스를 열정으로 가득 채울 MBA 및 석사 신입생들의 면면을 오리엔테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200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색 신입생

글 : 한세원 기자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2006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06 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예년에 비해 경력개발에 관한 내용이 다소 강화된 가운데 많은 신입생들과 재학생 멘토, 도우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실시되었다. MBA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조연주 교수는 “이번 행사는 Team Building and Career Development를 컨셉으로 하여 본격적인 전공 과정 시작 전에 전공간 친밀한 만남의 장을 도모하고, 엄정한 자기평가에 의해 경력개발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서울캠퍼스에 테크노경영대학원 외에 금융전문대학원이 신설되어 전공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으며, 올해 아쉽게도 102 위에 그치기는 했지만, Global MBA 100 랭킹에 당당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력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행사에서는 신입생들이 자기진단과 경력계획을 세우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라고 2006 학년도 행사 기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MBA 및 경영공학 신입생들은 학교, 교수, 학생회 소개 등 일반 사항과 동문, 인사담당자 초청 대담과 같은 예년의 기획 프로그램 이외에도 MBTI 진단 및 특강을 통해 자기 진단의 기회를 갖고, 비즈니스 게임과 현재 LG 전자 사장으로 재직중인 권영수 동문의 특강을 통해

기업의 일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1일 하루간 진행된 경력개발 특강과 경력개발 계획서 작성 평가를 통해 MBA, 경영공학 과정을 통한 커리어 구축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심화시키고 정규 학기를 시작하기 전 입학생 본인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 날 “Let’s have fun!” 행사에서는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신입생 팀들에게 우리 대학원 홍보 전략이라는 특정 주제를 부여, 이에 대한 역할극(role play)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참가자 전원이 팀워크와 함께 재미를 만끽하는 동시에, 학교홍보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였다. 이날 저녁 아트트리움에서 있는 웰컴파티에서는 박성주 부총장의 환영사와 함께 우리 대학원 홍보안을 TV 홈쇼펍 형태에 응용하여 발표한 6조가 역할극 우승을 차지, 테크노MBA 1기 박상용 동문이 협찬하는 상금을 수여 받았으며, 다수의 신입생과 재학생이 각종 상을 수상하고 베스트 멘토에 선정되는 등 3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 이색 신입생 인터뷰

사회적으로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본 대학원에는 다양한 전공별 학위 과정만큼이나 이채로운 이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다. 이번 호에서는 유창한 한국어 솜씨로 중국 유학생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최령매씨(경영공학)와 전직 공군대위라는 정통파 군인의 향로를 떠나 새로운 커리어라는 활주로에 착륙을 모색하고 있는 최원석씨(테크노 MBA) 를 만나보았다.

### 최령매 | 경영공학 석사 2006



유창한 중국어 아니 모국어 실력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한 최령매씨. 최씨는 중국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부친과 친분이 있는 국내 사학관계자의 후원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것이 그가 한국에 유학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유학생활 초기, 문화적 차이로 다소의 어려움 겪어

“한국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지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사소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 고충을 토로했는데, 한국에 온 후 처음 얼마간은 ‘스케치북’이나 ‘주스’ 또는 교과서상 외국 학자의 이름처럼 학교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많았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쉬운 질문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손들지 않아서 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다들 답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었다.”라며 중국학생들과 한국학생들간의 다른 모습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퀀트가 목표

최씨는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거대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획기적인 금융기법을 개발하는 퀀트(quant)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졸업 후 국내의 은행이나 증권사의 파생상품팀에서 커리어를 개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 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며 수학 및 통계학적 사고가 뛰어난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공학적 요소와 재무이론을 접목한 경영공학의 커리큘럼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 졸업 후에는 그간 받은 혜택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소망

“이때까지 저는 한국에서 제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혜택에 힘입어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같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는 제가 받은 혜택들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하고자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원석 | 테크노 MBA 2006



**예비역 공군 대위 출신으로서 KAIST MBA과정을 경력전환에 호기로**  
공군사관학교 48 기로 국제 관계학을 전공, 북한, 일본, 중국의 군비확장 등 동북아 정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동시에 소양교육반(기지註：일반대학 내 동아리와 유사)에서 연극활동을 했으며 자신을 소개한 예비역 대위 최원석씨는 대구, 성남비행단 등지에서 보급장교로 5년간 근무하고 지난 2005 년 전역했다. 최씨는 우리 대학원 MBA 과정에 진학을 고려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공사를 나와 일선 지휘관으로 복무한 이력을 살리고 MBA 과정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면 경력전환 및 개발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국내외 여러 MBA 과정 중 KAIST MBA 는 재학생들이 다양한 경력자 위주로 되어있어, 비교적 민간 진출 동문이 적은 공사 출신으로서 약점인 휴먼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분야 전문 지식 또한 그 어느 곳보다 잘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군장교 출신은 현업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면에서 차이점 있어

우리 대학원 MBA 재학생의 주축을 이루는 민간기업 출신 학생들에 비해, 군장교 출신으로서 “특기업무가 분류되어 있지만 해당분야 실무 자라기보다는 실무자들을 지휘, 감독, 평가, 책임을 지는 리더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면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던 최씨는, “그러나 두 그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존재 목적의 차이, 즉 일반 민간기업 직장인의 존재 이유가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는 반면, 군인은 무형의 전력인 전투력을 유지, 신장하여 전쟁역지, 국민보호 등 임무수행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예비역 장교다운 의견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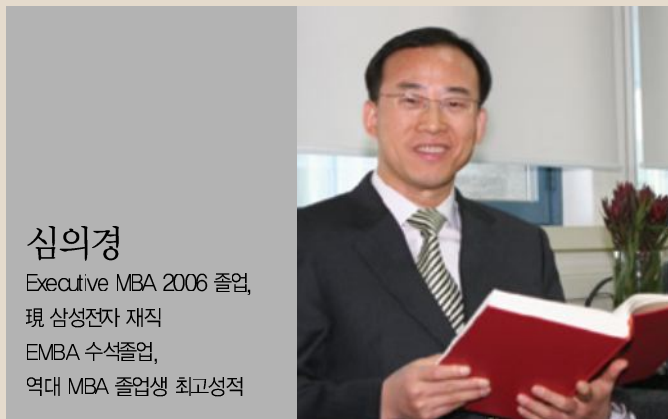
#### 공사 및 KAIST MBA 출신 최초의 글로벌 기업 CEO가 될 것

“비록 현재 군문은 떠났지만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하고 5년의 현역 복무기간 동안 국록(國祿)을 받은 자로서 꽤 많은 혜택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최씨는, “KAIST MBA 로 졸업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력이나마 마땅히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국민과 국가에 보답 해야겠다.”고 답했다. 장차 KAIST MBA 그리고 공사출신 예비역으로써 최초의 글로벌 기업의 CEO 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KAIST MBA를 통한 경력전환 성공사례가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밝혔다. **[E]**

## 2 학위수여식 현장

글 : 한세원 기자

지난 2월 18일(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1호관 대강당과 최종현홀에서는 경영공학 석/박사, MBA, Executive MBA 학위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졸업생 235명(EMBA 포함)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우등상에 김애숙(경영공학)의 9명이, 우수논문상에는 장윤석, 이소영(이상 테크노MBA), 김정은(경영정보), 한승돈(텔레콤 MBA), 박정민(금융공학) 등이 수상하였다. 또한 테크노MBA 전공(MBA)의 캡스톤 과목(Capstone Course)인 경영자문실습에서 창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올린 4팀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MBA는 이경준 기업은행 부행장의 축사와 기념공연 등으로 18명의 졸업생들의 졸업과 핵심 리더로서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고, 이어 신라호텔로 자리를 옮겨 사은회를 갖기도 하였다. 현재 KTF에 재직 중인 한승돈 동문은 2004-2005년간 본대학원 텔레콤 MBA 과정을 이수 및 졸업하였으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심의경 동문은 삼성전자 부장으로 재직하며 MBA 역대 최우수 성적으로 EMBA과정을 졸업해, 수 차례 언론의 취재로 일간지 지면상에 기사화 되는 등 MBA 후배들에 뒤지지 않는 학구열로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두 동문으로부터 그간의 학교생활에 대한 감회와 졸업생으로서의 다짐 등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심의경**  
Executive MBA 2006 졸업,  
現 삼성전자 재직  
EMBA 수석졸업,  
역대 MBA 졸업생 최고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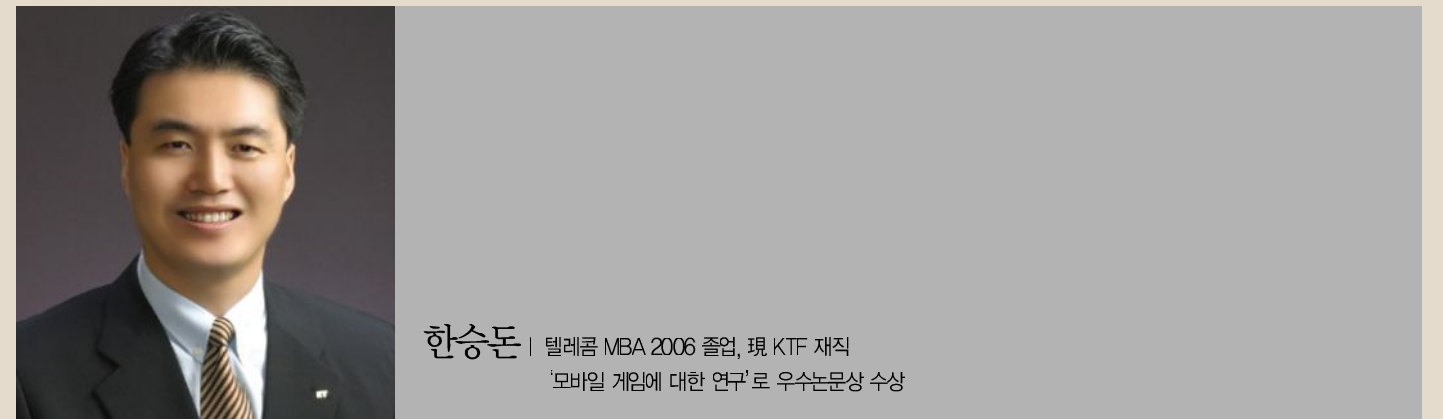
### 사례들 현업에 큰 도움돼

“회사생활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하느라 정신 없었던 2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금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힘들었다며 지난 학교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심 동문은 우리 대학원 EMBA과정에서 다루었던 최신 글로벌 경영 트렌드와 세계 유수기업의 인사관리 사례가 현업 실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지난 2년간 주말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함도 많았지만, 막상 수석으로 졸업하게 된 지금은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열정을 다하기를 당부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줄곧 인사조직분야에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심 동문은 삼성의 사내 TOEIC 1등급, 사내 독일어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물론 공인 노무사 자격증도 보유, 사내에서도 엄청난 자기관리에 유명하다. 심 동문이 못하면 적어도 삼성전자 내에서는 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에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심 동문은 후배들에게 “지금부터 주어진 2년이란 시간에 감사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열정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현업 업무의 성공적 수행과 EMBA 수석졸업의 영예를 동시에 안은 심 동문이 앞으로는 또 어떤 신기록 경신을 이어갈지, 프린터어 독자들과 함께 기대해본다.



**한승돈** | 텔레콤 MBA 2006 졸업, 現 KTF 재직  
'모바일 게임에 대한 연구'로 우수논문상 수상

### 확실한 변화의 계기가 돼

한승돈 동문은 회사측에서 MBA 졸업 이후 회사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적잖이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었다. “스스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KAIST MBA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KAIST 테크노인이 되기 위해 매사에 본질적이고 긴 안목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재학 시 배우고 고민한 것들은 다른 임직원들과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되어 공부하는 습관, 책보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이 변화된 모습인 것 같다.”며, 졸업은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세계를 품을 수 있었다.

“사실, 지난 2년간의 시간과 만남 중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1학년 2학기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낸 시간, 겨울의 중국 상하이 프로그램, 2학년 여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프로그램 등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며 특별히 교환학생 학기 전 유럽과 샌프란시스코 프로그램 후 미국에서 가족과 여행하며 보낸 시간들은 한 동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에 두고 두고 지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습 측면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학기가 전공과목들과 논문준비로 무척 버거웠다는 한 동문은, 가끔 너무 힘들어서 빨리 회사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 재학기간을 꿈과 비전을 품는 시간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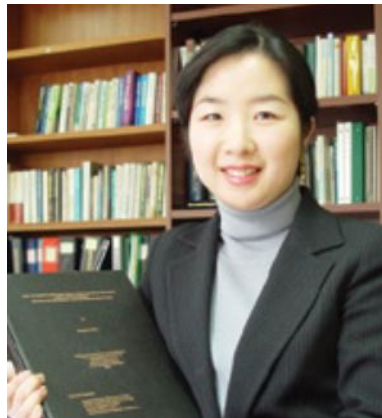
많은 대가를 치르며 MBA 과정을 선택한 후배들은 이미 충분히 현명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운을 댄 한 동문은, 2년 또는 1년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management)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꿈’과 ‘비전’이 철저히 준비되고 자라가는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한다고 MBA 후배들에게 충고했다. 또한 한 동문은 ‘자신이 한 때 이 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에머슨의 시를 언급하며, “우리 모두 인생의 성공자가 됩시다!”라는 후배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 모바일 게임 사용량 증가를 위한 요소 연구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안재현 지도교수와 연구실 세미나 때마다 좋은 코멘트를 해 준 텔스트라 연구실 가족들, 텔레콤MBA전공 동기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는 한 동문은,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이 “작년 KTF에서 상반기 출시된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평가단의 평가와 게임 다운로드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게임의 사용량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연구결과 모바일 게임 사용량은 고품질의 디자인, 콘텐츠의 속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이 밖에도 모바일 게임의 장르, 콘텐츠의 난이도 등이 사용량 증가가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밝혔다. 그러나 게임의 사운드, 사용자의 편리성, 콘텐츠의 안정성 등은 중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용량 증대에 있어서는 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아울러 검증되었다고. 한 동문의 결실인 이 논문이 실제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의 개발전략, 평가, 마케팅에 적극 활용될 날을 기대해 본다. **E**

# 조직의 덕이 있는 행동의 실천

virtuous



이 승 윤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기업들은 이에 대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어떤 기업들은 종업원 개개인의 안전을 즉각 확인하고 지속적인 물질적, 심리적 지원(ex. 카운셀링 서비스)을 아끼지 않은 반면, 어떤 기업들은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로 종업원들에게 업무에 충실할 것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무척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했는지가 종업원들의 애사심과 충성심,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취하는 행동과 대응 방식을 보고 이 조직이 얼마나 덕이 있는지(virtuous), 즉 인간적인지(humane), 정의로운지(just), 그리고 용기 있는지(courageous) 판단을 내리게 된다. 특히 9·11 테러와 같은 크나큰 혼란과 충격 속에서 조직이 취하는 행동은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게 되고, 구성원들은 그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이직률이 증가하고 기업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사심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사심은 자신의 직무에 쏟아 붓는 노력, 열정과 직결되어 있고,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로이터 통신 미국 지사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의 9·11 테러에 대한 대처 사례는 인간적이고 정의로우며 용기 있는 조직의 행동과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고조된 애착심과 충성심의 예를 잘 보여준다.

## 로이터 통신

### 미국 지사의 9·11 테러 대처 사례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에 위치한 로이터 통신 미국 지사는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이 무너지는 과정을 목격하고, 즉시 통제 센터(Control Center)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로이터 구성원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요구를 파악, 충족시키며 그 이후에 비즈니스를 걱정한다는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을 개시하였다. CEO를 비롯하여 보안 담당자, 인사관리 담당자, 고객관리 담당자 등의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통제센터에서는,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경찰, 항만, 그 외의 공공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검토하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로이터 종업원들의 안전 여부를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20명의 종업원들의 집으로 CEO가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며칠 째 실종된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도와 실종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한 달 여 후에는 실종된 로이터 종업원들을 위한 추모의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로이터 통신 미국 지사는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인간적인 기업의 면모를 종업원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었다. 한 로이터 통신의 종업원에 의하면, 로이터 통신이 굉장한 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에 더하여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지닌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한 종업원은, CEO가 로이터 종업원 가족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며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보며, 로이터 통신의 마음(heart)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인간적인 면에 더하여, 정의롭고 용기 있는 로이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례는 다음과 같다. 일부 종업원들이 미국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로이터 통신 빌딩의 전광판에 미국 국기를 게양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의 원칙은 한 국가가 아닌, 전세계인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편집국과 경영진들이 강조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글로벌 역할을 강조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칫하면 미국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국기 게양문제를 기업의 원칙을 용기 있게 고수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로이터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로이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University of Michigan의 9·11 테러 대처 방식과 구성원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필자는 University of Michigan이 9·11 테러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 또한 조직이 실천하는 덕이 있는(virtuous) 행동들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여 준다. University of Michigan은 테러 발생 직후 수업을 중단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뉴스, 학교의 안전대책,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다음 날 저녁에는 촛불 추모의식을 열고,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현 사태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것을 장려하였다. 필자의 설문조사 연구결과,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촛불 추모의식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촛불 추모의식이 매우 인도적이었고,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을 한 데 아우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사였다고 하였다. 특히 중동 출신의 구성원들에 대한 보복을 삼가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의롭고 용기 있는 행사였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9·11 테러에 대한 대학의 대응 행동들(ex. 촛불 추모의식, 수업 중단)을 덕이 있다(virtuous), 즉 인간적이고 정의롭고 용기 있다고 평가할수록 ①더 즐겁고 기쁜 감정을 느끼게 되고, ②자기 자신의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자각하게 되고, ③대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대학에 대한 애착심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의 덕이 있는(virtuous) 행동들은 구성원들의 감정, 자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대학에 대한 애착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 맺음말

우리는 그 동안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언론을 통하여 많이 접하여 왔다. 하지만, 기업 내부의 종업원들이나 외부의 일반 대중들 모두 기업의 이러한 부정적인 면 이외에, 인간적이고 정의로우며 용기 있는 모습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미국 지사와 University of Michigan의 9·11 테러에 대한 대처 사례는 경영진의 힘과 역량, 그리고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조직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시카고에 위치한 한 컨설팅 회사의 임원은 테러 발생 직후 종업원들에게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의료 서비스 기업의 경영진은 종업원들이 출장 다닐 경우의 안전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종업원들은 이로 인하여 이직을 고려하였고, 일부 종업원들은 경영진의 이 같은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극도의 위기상황에서 조직이 실천하는 행동들은 조직과 구성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위기 상황은 오히려 저하된 애사심과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테러와 같은 긴박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조직 행동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나 자부심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 행하는 덕이 있는(virtuous) 행동들은 비록 작은 행동이라도 조직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애사심과 충성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이다. 





# FT 선정 「2006 Global MBA 100」에서 KAIST MBA 102위가 의미하는 것

조 연 주 교수 | MBA Director

최근 FT 선정 “2006 Global MBA 100위” 랭킹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 학교는 안타깝게도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 대신 AACSB(또는 EQUIS) 국제인증 받은 랭킹조사에 참여한 149개 학교 중에서 102위를 차지했다. MBA 랭킹 조사기관은 여러 개 있으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 지역을 포괄하여 글로벌 순위를 결정하는 FT 선정, 글로벌 MBA 100위 안에 든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FT 랭킹에서 주요 평가항목은 무엇이고, 올해 우리 학교가 10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 I. FT 랭킹의 주요 평가항목

FT 랭킹의 주요 평가항목은 크게 세가지를 포함한다. 동문의 경력개발과 연봉 상승률(55%), 학교 구성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25%), 연구역량(20%) 등인데, 졸업한지 3년 된 동문의 MBA 만족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기관과 비슷하지만, 졸업 후 3년간 연봉 상승률과 같이 계량적, 재무적 가치에 비중을 크게 두면서, 특별히 다양성 지표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 동문조사(55) 졸업 후 3년간 연봉 상승률(20)과 현재 평균 연봉수준(20)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그밖에 재무가치(3), 경력 상승(3), 목표 달성(3), 취업 성공(2), 동문 추천(2), 3개월 이내 취업률(2) 등이 포함된다. “동문 추천” 지표의 경우, MBA 출신자를 채용한다면 어떤 학교 졸업자를 채용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2. 학교자료(25) 학교 구성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를 파악한다. 여성교수(2), 여학생(2), 여성이사(1), 외국인교수(4), 외국학생(4), 외국인 이사(2), 해외이동(6), 해외연수(2), 외국어(2) 등을 포함한다. 여성 및 외국인 구성 정도를 보며, “해외이동(international mobility)” 지표의 경우, 졸업 후 해외 업무를 맡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3. 연구역량(20) 학교의 연구역량 지표에는 박사교수(5), 교수진출(5), 연구실적(10) 등이 포함된다. “교수진출”이란 해당 학교가 배출한 박사가 top 50 비즈니스 스쿨로 진출한 정도를 의미하고, “연구업적”은 FT가 선정한 학술지(별첨)에 기재된 연구논문 수를 의미한다.

## II. KAIST MBA 랭킹 결과

우리 학교는 2005년에 비해 참가자수도 늘고, FT 선정 논문 수 역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100위 안에는 들지 못하고 10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 FT 랭킹 평가항목



〈표1〉 KAIST MBA 랭킹 결과

|                         |        |
|-------------------------|--------|
| 2006년도 순위               | 102    |
| 평균 연봉(\$ (포함하지 않음))     | 82,469 |
| 현재 평균연봉(\$ (산업별 차이 조정)) | 83,059 |
| 3년간 연봉상승률(%)            | 78     |
| 재무가치(rank)              | 77     |
| 경력상승(rank)              | 111    |
| 목표달성(%)                 | 63.4   |
| 취업성공(rank)              | 15     |
| 3개월 이내 취업률(%)           | 96     |
| 동문추천(rank)              | 110    |
| 여성교수(%)                 | 10     |

|               |     |
|---------------|-----|
| 여학생(%)        | 17  |
| 여성이사(%)       | 24  |
| 외국교수(%)       | 14  |
| 외국학생(%)       | 15  |
| 외국인이사(%)      | 12  |
| 해외이동(rank)    | 112 |
| 해외연수(rank)    | 10  |
| 외국어(수)        | 1   |
| 박사교수(%)       | 94  |
| 박사출신 교수(rank) | 19  |
| 연구업적(rank)    | 83  |

III. Global MBA 100위의 특징

아래 <표2>와 같이, 올해 Global MBA 100위권 안에는 전 세계 17개국이 포함되었다. 전체 100위권 안에 미국 MBA가 57개 학교, top 10에는 8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단연 미국 MBA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금융과 컨설팅분야, 연봉수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우세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예외가 있다면, “조직행동” 분야와 “해외 이동” 부문에서 유럽이 우세하여,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올해 글로벌 순위 1위는 Wharton MBA로서 평균 연봉수준이 높아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균 연봉(\$115,600)”은 상승세이고, 이는 예년에 비해 채용 증가와 MBA 입시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Top 20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유럽 학교, 100개 중 16개가 영국 학교로서 예년에 비해 유럽이 도약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MBA 시장은 해외 지역 캠퍼스의 확대, 해외 프로그램과의 공동 과정 운영 등 점차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2년에서 1년 과정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IV. 아시아권 학교 비교

아시아권에서는 세 학교가 100위 권에 진입하여 CEIBS(21위), 홍콩 과기대(47위), 싱가포르 국립대학(92위) 등이 포함 되었는데, 100% 영어 사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중국시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EU가 중국 정부와 합작 설립한 CEIBS(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Shanghai)는 “연봉 상승률”이 무려 154%로 중국에서 MBA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해외 이동”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졸업생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의 <표3>은 FT 랭킹을 결정짓는 몇 가지 중요한 평가 지표에 주목하여 아시아권 학교와 KAIST MBA를 비교한 것이다. 예를 들면, “평균 연봉수준”은 우리 학교가 CEIBS보다는 낮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높았고, “연봉 상승률”은 CEIBS가 가장 높았고, 우리 학교가 가장 낮았다. 중국에서 MBA 학위의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를 보여준다. 앞의 도표에서는 빠졌으나, MBA 과정의 “재무가치”는 우리 학교가 CEIBS보다는 좋았으나, 다른 학교에 비해 낮았고, “경력상승” 정도와 “목표달성” 정도는 우리 학교가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MBA 학위가 경영학 석사과정과 다른 “특별 학위”라는 인식이 낮아 졸업생의 진출이 차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대신 “취업성공” 지표는 우리 학교(15위)가 가장 높았고, “3개월 내 취업률”은 우리 학교(96%)가 CEIBS와 홍콩 과기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동문 추천” 정도는 우리 학교가 가장 낮아, 여전히 우리 학교에 대한 홍보가 취약하고, 해외 MBA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 지표에서 여성교수, 여학생, 여성이사 비율은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외국교수, 외국학생, 외국인이사 비율은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 이동” 지표는 우리 학교가 가장 낮아, 향후 우리 졸업생의 진출이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 무대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좋은 시사점을 얻는다. “해외연수” 지표의 경우,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모두 비슷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외국여”도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외국어를 한가지 이상 하고 있었다. “박사교수” 비율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홍콩 과기대가 100%를 기록하였고, “교수진출”은 우리가 19위로 다른 학교에 비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연구실적”은 우리가 가장 낮았다.

V. 몇 가지 시사점

FT 랭킹 조사에서 얻는 중요한 시사점은 MBA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정부 지원에 의해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MBA 과정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과정의 다양화가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재학생 만족도, 다양성, 연구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학교가 글로벌 순위에서 102위를 했다는 사실은 아시아 비영어권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MBA 100위 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순위에 든 아시아권 학교와 비교했을 때 현재 평균 연봉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취업률, 해외연수, 박사교수 비율 등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취업성공 정도와 교수진출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점은 높이 살 만 하다.

그러나 FT 랭킹에서 “연봉 상승률” 지표의 비중이 큰 만큼, 우리나라가 앞으로 MBA 졸업생을 글로벌 회사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학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외국교수와 학생의 비율을 지금보다 현저히 높여야 하며, 연구실적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저널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학교가 올린 Global MBA 102위의 성과가 내년도 100위 권에 진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최근 “세계는 평평하다”를 쓴 뉴욕 타임스 기자 Thomas Friedman에 의하면, 인터넷에 의해 평평해진 세계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 받는 나라는 다름아닌 중국과 인도이다. 올해 FT 랭킹에 중국 학교가 두 군데 들어간 것을 보면, 중국의 약진은 경영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직 순위에 들지 못한 곳 중에서 특히 “인도”와 “대만”의 학교들이 앞으로 만만치 않는 맞수가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100% 영어를 사용하는 대만 정치대학은 IMBA(International MBA)를 이수한 외국학생 사이에서 “입소문 마케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인도의 IIM(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Ahmedabad는 벌써 하버드와 비교될 정도로 질적 수준을 인정 받고 있다. 다만, 두 학교 모두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학비와 외국학생수 등을 통제하고 있어 아직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만간 정부의 통제가 완화되어 MBA 과정이 외국학생에게 완전 개방되고 학비도 자율화된다면, 이들 또한 Global MBA 100위 권에 진입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F**

<별첨>

FT 선정 저널은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The Accounting Review,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Econometric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Journal of Fin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Science, Operations Research,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MIS Quarterly, Harvard Business Review,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Sloan Management Review, Long Range Planning,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Accounting, Organisations and Society, The Rand Journal, The Journal of Business Ethics, Organizatio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등 40개 저널을 포함.

<표2> 세계 지역별 분포

| 지 역 | 아메리카(5개국)                                         | 유럽(8개국)                                                                                | 아시아(2개국)            | 아프리카         |
|-----|---------------------------------------------------|----------------------------------------------------------------------------------------|---------------------|--------------|
| 국 가 | US(57개 학교), Canada(7), Costa Rica, Brazil, Mexico | UK(16), France(3), Spain(3), Australia(2), Ireland(2), Switzerland, Netherlands, Italy | China(2), Singapore | South Africa |

참고 :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선전하고 있는 반면, 독일이 빠져 있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남미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다.

<표3> 아시아권 학교 비교

| 학교(전체 순위)       | 평균연봉(\$) | 연봉상승률(%) | 외국교수(%) | 외국학생(%) | 해외이동(rank) | 연구실적(rank) |
|-----------------|----------|----------|---------|---------|------------|------------|
| CEIBS (21)      | 135,562  | 154      | 64      | 19      | 99         | 71         |
| 홍콩 과기대 (47)     | 74,363   | 85       | 90      | 89      | 34         | 36         |
| 싱가포르국립대(92)     | 69,236   | 85       | 45      | 94      | 5          | 62         |
| KAIST MBA (102) | 83,059   | 78       | 14      | 15      | 112        | 83         |

# 겨울학기 인턴십과 CareerLeader

이미 지난 호 조연주 교수의 기고에서 성공적인 경력개발은 다양한 경험과 엄정한 자기평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경력개발책에서는 그 실례로 지난 겨울방학 동안 경력개발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한 겨울학기 인턴십과 2006년 봄학기부터 재학생들에게 제공될 자기평가도구인 CareerLeader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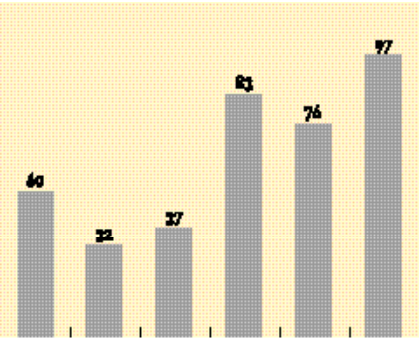
글 : 정 석 기자

## 겨울 인턴 실습, 경력개발의 일환으로 호응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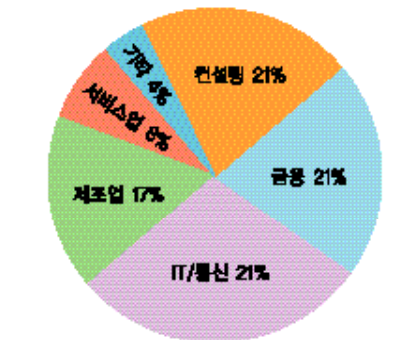
이번 겨울 방학 기간 동안 KAIST MBA의 많은 학생들이 인턴 실습에 참가하였다. 올 겨울에는 총 25개 업체에서 52명의 본교 학생들이 인턴 활동을 수행하였다. 여름 방학 중의 인턴 참가자 수를 합한 2005년 전체 인턴 참가자는 총 97명으로서 예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인턴 실습에 참여하였다.(그림 1 참조) 이는 인턴 실습 활동을 경력 개발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그 동안 인턴 활동을 수행한 KAIST MBA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이 더욱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이 인턴을 수행한 업종을 살펴보면 12명의 인턴을 받아들인 KTH를 비롯하여 IT/통신 업종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인턴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어 8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 분야에서 11명, 딜로이트, 이언그룹, 삼일회계법인 등 컨설팅 분야에서 11명의 학생들이 인턴 실습을 하였다. (그림 2 참조)

올해에도 많은 회사들이 학생들의 훌륭한 자질과 우수한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일례로 한 업체의 경우 자사 전문 인력 수준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본교 학생에 깊은 만족감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인턴 학생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학생들 역시 인턴 실습을 통하여 자신이 진출하기를 바라는 분야에서 미리 일해봄으로써, 자신의 진로 설정 및 경력 개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가 학생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국내 기업들이 MBA 인턴 활용에 대한 인식과 방안이 부족하고, 기업과 학생 상호간의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점 등 몇몇 개선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1〉연도별 인턴 참가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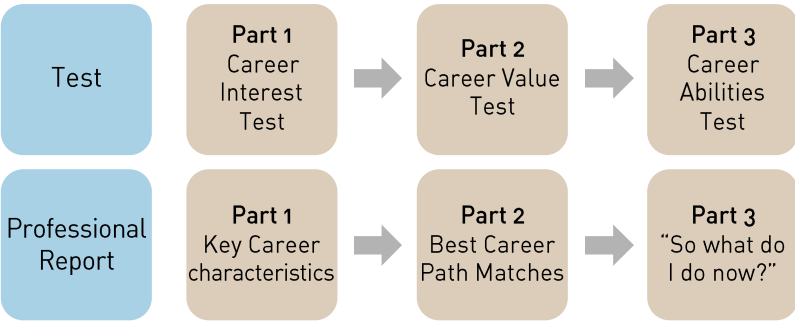
〈그림 2〉2005 겨울 인턴 실습 기관 현황(%)

## CareerLeader , MBA 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자기진단 Tool

주지하다시피 경력 개발의 시작은 정확한 자기평가에서 출발한다. 정확한 자기평가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을 알려준다. 출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경력의 길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자기진단 테스트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KAIST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기 중에 MBTI, DISC 등을 제공하고 있다. MBTI 는 인식과 판단에 대한 용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성격 및 행동 유형 검사이다. DISC 역시 행동 유형 검사로서 인간의 행동을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개인이 어떠한 행동 유형을 지니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이외에도 직업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STRONG검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언급한 자기진단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심리학과 행동 이론에 기반한 심리, 성격 Test의 성격이 강해, 개인의 실질적인 직업적 능력이나 적성, 잠재성 등을 진단하고 이를 경력개발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경력 개발의 관점에서 개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Career Path를 조언해줄 수 있는 새로운 진단 Tool이 필요한 것이다.

CareerLeader는 Harvard Business School의 Career Development Center Director와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250여 개의 Global Top B-School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단 및 결과 보고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며, 다음 그림처럼 각각 3단계로 이뤄진다.



3단계에 걸친 진단은 첫째, 직업 흥미도 검사 둘째,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직업가치 검사, 셋째, 개인의 직업 능력과 잠재성 검사에 걸쳐 실시된다. 진단 결과는 Professional Report로 상담자에게 제공되며 역시 3단계에 걸쳐 개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 조직 문화, 성격적인 특성을 보고하고, 다양한 Career Path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가장 매치율이 높은 Career Path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현실적 조언을 해준다.

MBA가 더 이상 성공의 보증 수표가 아닌 이상 적극적인 경력 개발과 이에 대한 고민은 MBA 학생들에게 있어 필수가 되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경력 개발에 있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언과 자기 진단이 필요하거나, 또는 경력 개발에 대해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CareerLeader는 추천할만하다.

CareerLeader는 [www.careerleader.com](http://www.careerleader.com)에서 자세한 설명과 소개를 찾아볼 수 있으며, 2006년 봄학기부터 경력개발세미나 교과목 수강생에 한해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본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 딜로이트 컨설팅(MIS MBA 2005, 이병철)

“딜로이트 컨설팅 소속의 컨설턴트로서 2달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과거에 프로젝트에 임하는 것과는 좀 더 나아진 새로운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동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이나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Know-How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너무 짧은 기간동안, 이미 진행중이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마지막까지 시스템이 Open 되는 최종모습을 보지 못해 아쉬웠으며, 컨설팅 펌의 어떤 방법론과 업무를 배운다는 측면보다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시스템 구축일정과 관련된 관련된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Acting PM의 역할이라, 제한된 일정에라 적잖은 부담을 느꼈지만, 동부아남반도체의 전략과 전략방향 및 테마, 주요 KPI를 통해 반도체 Industry의 전략과 특성을 배우게 되었으며, BSC의 설계 방법론과 KPI 도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한국투자증권(테크노 MBA 2005, 서민수)

“인턴 실습은 일주일간의 증권업, 증권회사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ELW부서, WRM부서에서 직접 부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주로 부서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부서에서만 인턴을 한 것이 아니라, Brokerage와 Dealing 기반의 ELW 부서와 Underwriting 기반의 WRM부서를 경험함으로써,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서를 돌면서 인턴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한 부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인턴을 하여서 깊게 일을 할 수 없었고,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한국증권 역시 처음으로 61명이나 되는 많은 인턴을 뽑아서 어떤 부서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떤 일을 시킬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 갔을 때는 구체적인 Job이 없었고 그로 인해 Contribution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증권 인턴을 통하여 증권업이 어떤 것이고, 증권회사는 증권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업에도 크게 은행, 보험, 증권이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번에 경험한 증권업에서도 많은 업무 영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연히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다는 저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여서 금융권의 어떤 업종, 어떤 업무 영역에서 일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실습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kaistgsm.ac.kr/job](http://www.kaistgsm.ac.kr/job)



중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과 시야를 넓히고 재중한국인 중국기업인 고위직인사와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해마다 마련되는 글로벌 현장학습 '상하이 프로그램'과 '북경 프로그램'이 올해에도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2002년도부터 시작된 '상하이 프로그램'은 본교 학생과 美 샌프란시스코 대학(USF)의 MBA 학생들이 함께 참가하여 본 캠퍼스 및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Jiao Tong Univ.)에서 특강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내기업과 중국기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본교 MBA생 8명과 USF MBA생 11명이 참석하였다.

나 범 수 | 텔레콤 MBA 2005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 인근 콜로마에서 금이 발견된 이후 시작된 골드러시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남미,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처럼 유래 없이 단기간에 인구가 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1850년에 정식으로 미국의 한 주로서 승인되었고 금광지대로 가는 관문이었던 새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州都)가 되었다. 그 후 1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이웃나라에서 새로운 골드러시가 재현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중국을 향하고 있으며 각국의 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골드러시 당시 새크라멘토에 견줄만한 곳이 바로 상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월 새해 벽두, 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파리에서 귀국 후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겨울학기 국제화 현장실습 과목인 상하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150년 전 골드러시의 무대였던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온 샌프란시스코대학(USF) MBA학생들을 맞이하여 이들과 함께 21세기 골드러시의 중심지인 상하이로 출발하기까지 약 일주일간 동아시아의 허브인 우리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낮에는 KAIST 강의실에서, 밤에는 서울시내를 누비며 어쭙잡은 영어실력으로 열변을 토하곤 했다. 다만 나 자신이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던 탓에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친구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던 점과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겼으며 내년 참가자들에게는 이러한 측면에서 미리 준비하여 우리 문화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한편 McKinsey, Morgan Stanley,

KOTRA, Citybank 등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초빙강사들의 강의는 주로 우리의 산업경제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평소 강의실에서 듣기 어려운 풍부한 현장경험과 업무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미국에서 온 친구들뿐 아니라 KAIST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다섯 번째 중국 여행이었음에도 상하이는 첫 방문이어서 다소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하나의 도시 안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하이는 다국적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 및 동행한 중국 출신의 USF 학생들에게서는 중국 문화에 대해, 그리고 중국 4대 명문대학 중 하나인 상하이교통(交通)대학에서의 강의와 여러 업체방문을 통해 중국의 제조업과 IT, 유통, 금융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삼성, LG, HP, Dell, Philips 등 세계 유수브랜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Ben-Q의 생산라인을 견학할 때나 GM대우의 마티즈와 똑같이 생긴 체리자동차의 'QQ'가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중국의 저력이 소름이 돋기도 했다. 연수기간 내내 아직 우리의 뇌리에 자리잡고 있는 지금까지의 중국을 버리고 하루 빨리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하여 그들과 맞설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뭔가 돈 될 거리를 찾아 중국으로 모여드는 전세계의 투자자들과 미래의 경쟁국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싸구려 '짝퉁'의 나라로 비춰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퍼렇게 선 칼날을 치파오 품속 깊숙이 감춰둔 채, **F**

21세기 Gold

Rush

현장을 다녀와서

#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휴먼네트워크 구축을 향하여...



1982년 개원하여 고객만족 경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안동병원의 이사장이자 AIM 과정 총 동문회 회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강보영 동문을 소개한다.

글 : 박주영 기자

AIM과정 동문회장 **강보영 동문**

## 카이스트에 대한 애정

동문회장직을 맡게 된 까닭을 강 동문은 “타 대학에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지만 카이스트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에게서 가치 있는 지식을 구할 수 있었고 또 훌륭한 많은 동문들을 만날 수 있어 유독 애정이 가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겠죠.”라며 겸허한 웃음을 보였다.

## KAIST 만의 참신한 교수진, 알찬 과정 그리고 귀한 동문

강 동문이 느끼는 카이스트만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단대 내 수준에서 유사한 과정을 가지는 타 대학과는 달리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아래 더 전문화된 지식을 구하고자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바람에 맞게 카이스트에서 참신한 교수진과 알찬 과정 아래에서 세계 유수 대학에 버금가는 학문을 구할 뿐 아니라 실제 경영진으로 경험에서 우러나는 보다 실질적인 지식을 동문들과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장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카이스트에는 전문대학원 아래 세분화된 전문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각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다른데 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시너지효과에 의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카이스트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지만 동창회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문 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 강보영(姜普英) 이사장 프로필

### | 학력 |

- 계명대학교경영학과 학사 (1972)
- KAIST 제2기 최고지식경영관리자과정(CKO)
- KAIST 제12기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외 국내외 다수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 경력 |

-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대표이사 (1982~現)
- 국립의료원 운영위원 (2000~現)

## 배보경 교수가 바라보는 강 동문

최고경영자과정 디렉터, 배보경 교수는 평소 그의 배움에 대한 열의와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높이 샀다. “배움에 특히 관심과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의 IT전략 등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특히, 최고지식경영자과정 (KCEO 2기) 에서 학습한 지식경영을 실제 경영에 직접 접목시켰으며 이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항상 배움의 자세로 해외 병원, 학교, 기업 등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하여 지식과 정보를 구합니다. 그의 리더십 또한 대단합니다. 그의 연설은 그 내용면에서도 충실할 뿐 아니라 힘이 느껴집니다.” 아울러 배교수는 강 동문에게 동문회의 번영을

기대하였다. “우리학교의 특성상 저는 최고경영자과정과 그 동문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AIST 본원이 설립 된지 오래되지 않아 다른 학교에 비해 동창들의 학교 공헌이 미약하며 게다가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더욱 그러합니다. 최고경영자과정 동문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강 동문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KAIST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최고경영자과정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강 동문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그의 학교와 동문에 대한 열정과 애정 그리고 다양한 경험으로 더 나은 지식 공유의 장(場)으로서의 KAIST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프로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1991)  
KAIST 경영과학과 석사졸업(1993)  
KAIST 경영공학파 박사수료(1996)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2004)  
키움닷컴증권 창립멤버, 금융공학 센터장(2000~2004)  
한국투자증권 트레이딩센터장(2005~현재)

| 연구논문 |

1. 추계적 이자율과 임묵적 변동성(1993, 재무연구)
2. 선물 및 옵션 만기일의 KOSPI200 수익률의 일종변동성 구조(2005, 기업경영연구)
3. KOSPI 200 선물 및 옵션의 만기일 효과(2006, 증권학회지)

# 류혁선 동문

글 : 하지는 기자

금융시장의 꽃이라는 파생상품은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개설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새롭게 열린 기회 of 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혁선 동문을 만나보았다.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파생상품을 90년대 초반 류혁선 동문은 어떠한 연유로 연구하게 되었을까? 그는 운명이었다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 우연히 참여한 선물 세미나에서 옵션을 알게 되었고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당혹스러움과 설렘으로 흥분했었다고 한다. 그가 KAIST 경영과학과 석사과정에서 금융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조차 우리나라가 이런 시장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그러나 옵션의 매력을 접한 류 동문에게 당시의 시장상황은 중요하지 않았다. 옵션이란 새로운 세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다.

류 동문이 박사과정을 수료할 즈음 우리나라에도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발 작업 등에 합류해 보았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옵션시장을 연구해온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류 동문은 1996년 선물 시장 개장과 함께 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을 실무에서 실험하는 단계로 (구)쌍용증권, 동양증권에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과 운용전략 개발에 참여하였다. 그 후 키움닷컴증권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금융공학 센터장으로서 파생상품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인영업, 자산운용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류 동문은 만족하지 않고 전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미국의 발전된 금융시장을 접한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투자는행으로서의 증권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귀국한 후 새롭게 꿈꾸는 금융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였고 현재는 지난해 통합된 한국투자증권의 트레이딩센터장을 맡고 있다.

먼저 배운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일, 한국 금융시장 선진화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

류 동문은 직장 업무 외에도 TV에 출연하여 옵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저술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한경와우와 MBN에서 선물, 옵션의 전문 패널로 2년 동안 활동 하면서 옵션에 대한 강좌를 진행 하였는데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 투자가를 위한 옵션@살 때와 팔 때’를 2002년 출간 하였고 지금은 책의 내용을 보완한 2판을 준비 중이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다. “비결은 없습니다. 기회가 되는 데로 먼저 배운 내용을 후학들에게 전파하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저 역시 일하기가 편하니까요.”

금융인으로서 목표로 하는 미래상을 묻자 “한국의 금융시장 선진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배운 자로서 알고 있는 적은 지식과 경험들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카이스트에서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마친 그에게 카이스트에서의 학창 시절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을까? “KAIST에서의 생활은 공부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석사 1년 차 때의 무시무시한(?) 경험과 랩 세미나를 통한 연구 등은 사회에 나와서도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조적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멀리 보고 길게 생각하자

금융시장에서 전문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에게 금융전문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금융시장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실무에 와서 더 많은 공부와 연구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 동문은 후배들에게 자신이 연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이 될 것인가 또는 지금 당장 활용 가능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멀리보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게임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1기간의 모델에서는 서로에게 최선인 해를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모델에서는 이들은 서로에게 최적인 해를 선택합니다. 인생에서도 눈 앞에 이익을 쫓다 보면 최적의 해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 엄광빈 프로필 |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2003. 3~2004. 2)  
제5기 KAIST 전자정부고위과정  
(주)위저드 정보시스템 회장(2002. 2~ )

| 엄정원 프로필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1996. 3~1999. 12)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2001.1~2005.3)  
제7기 KAIST 전자정부고위과정  
(주) 선광염직 기획팀장(2005. 5~ )



## 부녀가 함께 하는 경영 그리고 KAIST, 전자정부고위과정

위저드 정보시스템(주)과 선광염직을 운영하는 엄광빈 회장(전자정부고위과정 5기 동문)과 딸 엄정원 실장(전자정부고위과정 7기 동문)을 만나 때론 아버지와 딸로, 때론 협력자로, 또 동문으로 함께 일하고 배우는 둘의 각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양산업에서 정보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두 동문은 현재 위저드 정보시스템(주)와 선광염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사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엄광빈** 섬유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이미지와 낙후성으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해 사양산업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동기가 되어 섬유 업체의 생산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 가치 창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산업체로의 발전을 돕겠다는 이념 아래 위저드 정보 시스템이 설립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두 업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력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부녀가 함께하는 경영 그리고 카이스트

부녀가 함께 경영하고 또 같은 공부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엄광빈** 지식과 함께 운영하는 점에는 많은 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점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협력자를 얻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여러 면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우선 여러 분야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사업 구상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과의 소중한 인연도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카이스트에서 얻은 것들이 많았기에 주저 없이 딸에게 추천 하였습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전자정부고위과정

지식기반 전자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고위관리자들에게 지식기반 전자정부 마인드를 확산하고 IT 기반의 조직혁신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현재 제8기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 엄광빈, 엄정원 동문

글 : 박주영 기자

엄격하신 아버지, 열성적인 경영인

경영인으로서, 동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각 역할에서의 엄광빈 동문은 어떤 분인가요?

**|엄정원** 어릴 적부터 자식들에게 엄격한 아버지이지만, 사실 저에게는 경영인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더 익숙한 편입니다. 경영인으로써의 항상 부족한 부분을 끊임 없는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채우는 노력하는 분입니다. 학교 동문으로써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지만,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학교를 다니신 것은 어릴 적부터 항상 봐온 부단히 노력하는 아버지 본연의 모습 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카이스트와 동문에게 바라는 바

두 부녀에게 카이스트는?

**|엄광빈** 카이스트는 여러 면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다른 고위 과정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곳에서 뵈었던 모든 분들이 그 곳에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엄정원** 카이스트를 다니면서 제가 보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효율적인 수업 구성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IF**



우리 나라의 모든 지식을 한 곳에

# 국가 지식정보 DB 사업

글 : 정 석 기자

과제나 발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 보통 금융 정보는 한국 은행, 통계 정보는 통계청 식으로 찾으려는 정보에 따라 다른 사이트를 찾아가게 된다. 하지만 국가 지식 DB를 이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또는 일반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손쉽게 질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정보통신부와 정보문화진흥원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각종 지식정보자원의 전자적 공유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지식정보 자원 관리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의 핵심은 2004년까지 2,385억 원을 투입한 국가 지식 DB 구축으로서 과학기술, 교육학술, 역사, 문화, 산업 등에 걸쳐 2억 2천만 건의 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시켰다.

국가 지식 DB는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가지식포털은 EKP(Enterprise Knowledge Portal)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지식통합검색, 외부지식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커뮤니티 지원, 지식의 교환 및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5년 3월 구축된 민간포털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야후, 파란, 엠파스와 같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국가 지식 DB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Knowledge Portal인 국가지식포털이 자료 검색과 활용성,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더 우수한 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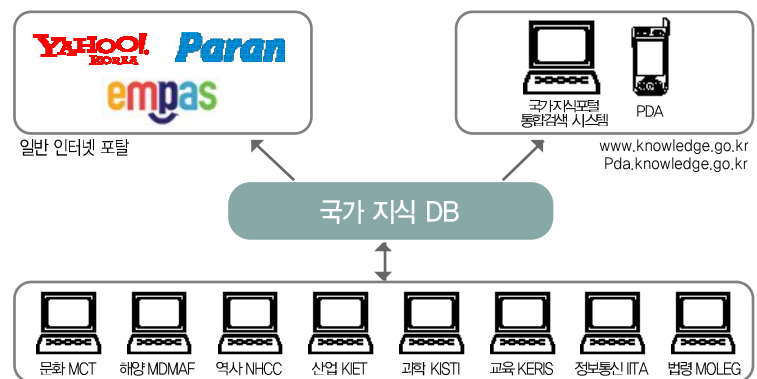
국가 지식 DB는 2004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자료의 42.9%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이용건수 800만 건, 검색 비용 절감 효과 2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장래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 [F]



국가지식포털 초기화면. 일반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EKP와 유사하다.



지식 검색하면 '지식파 DMB 시장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검색해 보았다. DB가 보유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었다.



## 2006 Homecoming Day 개최

스승의 날에 맞추어 매년 봄 실시되는 Homecoming Day 행사가 오는 5월 13일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문화공연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특강,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와 오랜만에 모교에 방문하여 그간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 동문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테크노 MBA 2기, 금융공학 MBA 1기는 입학 10주년을, 경영과학 12기는 졸업 20주년을 맞아 자체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Homecoming Day 행사가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06년 5월 13일(토)

■ 장소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SUPEX 경영관 아트리움 및 최중현 홀



## 동문회비 납부 안내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KGSM 총 동문회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동문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문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회비는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총 동문회는 앞으로도 동문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앞으로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동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500여 동문의 참여의 좌표가 되는 동문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하시어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비 사용 용도

- 동문주소록 제작
- 각종 동문행사 운영 및 진행
- 기타 동문서비스 사업

■ 동문회비 납부 안내

- 연회비 30,000원 (종신회비 200,000원)
- 회비 납부구좌 : 기업은행 001-115367-01-01 2(예금주 : KAIST 동문회)
- 문의 : MBA 마케팅실  
(담당자 : 최태선 cts211@kgsn.kaist.ac.kr / 02-958-3202)

## 테크노인의 세상 엿보기

2006년 봄과 함께 함찬 발걸음을 내딛는 테크노인들의 새 학기 다짐을 들어보았다.

**김 승 수** (테크노 MBA 2006)

KGSM 입학을 준비하면서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꾸 꿈들을 이뤄가는 멋진 2년을 보내겠습니다. 화이팅^^!

**정 석 중** (텔레콤 MBA 2006)

자기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개짓하고자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KGSMers, Be Creative!

**박 소 정** (테크노 MBA 2006)

한번에 바다를 만들지 않고 작은 강부터 차근차근 만들겠습니다! 학교에 갇혀 공부만 하기 보다는, 꽃동네 봉사활동과 인턴십, 공모전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강줄기를 만들겠습니다.

**박 중 관** (경영공학전공 2006)

한 학기 동안 대만에서 교환학생으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번 학기, 부디 건강한 맨 정신(?)으로 모든 숙제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